

2023. 5. 8.(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5. 8.(월) 오전 06시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진만	2133-2900
공간정보담당관	서미연	2133-2810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2133-2832
담 당 자	김선화	2133-2837
담 당 자	최지이	2133-2838
관련 누리집	<a href="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https://www.juso.go.kr/openIndexPage.do</a>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 서울 도심 가로등 사물주소로 더 찾기 쉬워진다..시, 주소체계 고도화 본격 추진

- 시,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행안부 공모사업에 5개 분야 선정
  - ①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 ‘도로시설물 대상 사물·공간주소 적용’ 사업
  - ② 서울 서초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 사업
  - ③ 서울 송파 ‘주소기반 지능형 사물인터넷 활용모델 개발’ 시범사업
  - ④ 서울 광진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 ⑤ 서울 강서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사업’
-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 위해 5월 중으로 T/F팀 구성
- 시, “주소정보 지능화, 활용 기술 개발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생활 행정 서비스 혁신에 앞장설 것”

서울 도심 속 신호등, 가로등 같은 도로시설물과 그 주변 일대 길찾기가 더 손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소정보와 안내 체계가 제각각이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신호등,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에 사물·공간주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사물 주소는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주소 정보다.

- 앞서 서울시는 올 2월 행안부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5개 사업에 선정됐다
  - 그간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행된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매년 1개 안팎으로 선정됐었다. 이번 공모 선정 결과는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에 따라 주소정보 업무가 공간정보담당관으로 이관되면서 최첨단 디지털 공간정보 기술과 주소 정보 지능화를 접목한 인프라 강화를 통해 얻어낸 성과다.
  
- 이번에 선정된 서울의 5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3개(①서울시- ‘도로시설물 대상 사물·공간주소 적용’ ②서초구-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 ③송파구- ‘주소기반 사물인터넷 활용모델 개발’)와 국비지원사업 2개(④광진구-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배송 인프라 구축’ ⑤강서구-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사업’)이다.
  - ‘도로시설물 대상 사물·공간주소 적용’(서울시) 시범사업은 도로대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신호등, 가로등 같은 시설물에 주소정보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전국 주소정보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 인근에 혼재된 시설물에 대한 통일된 위치표시 및 안내체계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 구현’(서초구) 시범사업은 고밀도 입체 복합 시설인 고속터미널을 대상지로 실내·외가 연결된 격자방식 실내 도입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입체주소 부여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여 주소정보 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을 실증한다.
  - ‘주소기반 지능형 사물인터넷 활용모델 개발’(송파구) 시범사업은 잠실역 및 석촌호수 주변을 대상지로 주소기반 사물인터넷 활용모델과 지능형 주소정보시설을 정의하고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소기반 사물인터넷(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등) 활용모델을 실증한다.
  -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인프라 구축’(광진구) 사업은 능동 어린이대공원을 대상지로 하여 주소정보 기반의 자율주행 이동경로DB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시나리오를 실증한다. 또한 휠체어 및 시각장애인용 내비

게이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구축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이동경로DB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활성화할 예정이다.

-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세분화’(강서구) 사업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판매시설별로 주소체계를 세분화하여 신규 도로명을 부여하고 개별 건물과 점포별로 상세주소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 서울시는 완성도 높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간 자치구와도 협력 회의를 진행해 지자체별 사업방향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시 지원사항 등을 논의해왔다.

□ 아울러, 주소정보 인프라 확충 및 주소기반 산업 창출을 위해 5월 중으로 T/F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 시는 지자체 최다인 5개 사업을 선점하면서 명실공히 미래 주소정보 산업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된 만큼, 시대변화에 맞는 주소정보 지능화와 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생활·행정 서비스 혁신에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이다.

□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디지털 혁신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면서 신기술과 주소정보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모델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래 사회와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한 주소체계 고도화 정책을 행안부와 함께 연구하고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접목한 주소지능정보 구축 및 활용모델 개발과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선정사업 : 총 5개

구분	자치구	주제	세부과제
주소체계 고도화	서울시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시범사업	도로대장관리시스템을 연계한 도로시설물 사물주소 적용사업
	서울 강서	대규모 판매시설 세분화사업	판매시설별 주소체계 세분화하여 신규 도로명 및 상세주소 부여 (강서 농수산물 시장)
혁신 산업 창출	서울 광진	주소정보산업 모델 시범사업	주소기반 공동 모빌리티(로봇) 이동지원체계 구축 (능동 어린이대공원)
	서울 송파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주소기반 지능형 사물인터넷 활용모델 개발연구(잠실역 주변)
	서울 서초	주소정보산업 모델 시범사업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구현사업 (서울고속터미널)